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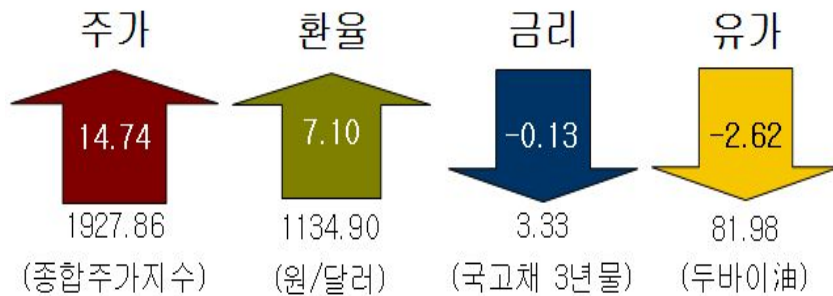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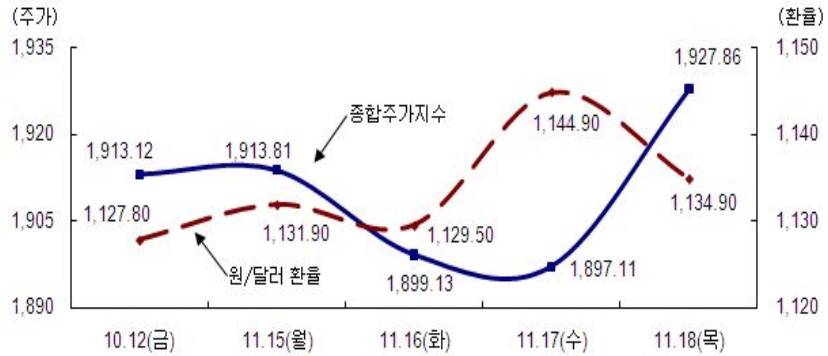
10-45(통권 425호)
2010.11.19



■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2~11.1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임 희 정 연구 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

■ 개관

국내 경제는 2011년에도 수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4%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

대외적으로는 세계 재정 여력 약화, 환율·무역 전쟁 지속,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된다. 첫째는 세계 재정 여력 약화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 여력은 국가부채 누증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자금 증대, 세수 확보 미약, 지출 위주의 재정구조 등이 이의 주요인이다.

둘째, 환율·무역 전쟁 지속이다. 서울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불균형 미해소, 슈퍼 차이나의 위력 증대,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이 무역마찰 심화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이다. 세계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2011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 회복 부진, 주택 매매 심리 약화, 주택판매 전망 미흡 등이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 첫째,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는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LCD 가격이 2011년에도 하락세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업계의 투자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둘째,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르는 투자 부진이다. 설비투자 및 투자선행지수가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0년 투자급증에 의한 기저효과 발생과 함께 경기 둔화 전망,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이다.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계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한 가운데 주택시장 침체와 출구전략 본격화 가능성 등에 따라 가계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크다.

넷째, 남북 관계 긴장 지속이다. 천안함 사태 미해결로 남북간 긴장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지연 및 남북 교류 정체가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미와 북중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I. 2011년 국내 전망 개관과 문제점

- 국내 경제는 2011년에도 수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는 2011년에 4%대의 성장세가 예상됨
 -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의 꾸준한 회복과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4%대 성장세 유지
 - G20 국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률 기록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2011년 성장률은 4.5%로 예상되어 중국 9.6%, 인도 8.4%, 인도네시아 6.2%에 이어 G20 국가 중에서는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
-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됨
 - 대외적으로는 세계 재정 여력 약화, 환율·무역 전쟁 지속,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됨
 - 세계 재정 여력 약화 :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부채 누증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 환율·무역 전쟁 지속 : 세계 경제 불균형 성장 지속, 미국 경제 회복 미흡 등으로 환율 전쟁 지속과 무역 마찰 심화 예상
 -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 : 세계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부동산 경기는 침체는 2011년에도 이어질 전망
 - 대내적으로는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등이 우려됨
 -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 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반도체와 LCD 등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우려
 -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 : 설비투자 증가에 의한 설비투자조정 압력 약화 등으로 설비투자 급속 침체 예상
 -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 가계부채 증가, 연체율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가계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증대
 - 남북 관계 긴장 지속 : 남북한 대화 재개 지연, 6자 회담 재개 불투명 등으로 남북 교류 정체가 이어질 전망

II.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

1. 세계 재정 여력 약화

○ (현황 및 전망)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 여력은 국가부채 누증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약화될 전망

- 미국은 2009년 보다는 개선되나 여전히 GDP 대비 10% 내외 적자가 지속될 전망
 - 국가부채는 2010년 GDP 대비 92.7%, 2011년 99.3%로 증가세 지속
- 유로 경제도 2009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5%대의 적자가 지속될 예상
 - 유로 경제의 국가부채는 2010년 GDP 대비 84.1%, 2011년 87.0%로 증가세 지속
 - 특히, 아일랜드 국가부도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재연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의 재정적자 역시 2011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국가부채는 2010년 GDP 대비 225.9%, 2011년 234.1%로 규모가 확대
- 신흥개도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
 - 인도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 대비 9.2%, 2011년 8.5%로 높은 수준이 전망되고 부채 수준도 각각 71.8%, 71.4%로 전망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

< 주요국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 추이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E)
미국	재정수지	-2.0	-2.7	-6.7	-12.9	-11.1	-9.7
	국가부채	61.1	62.1	71.1	84.3	92.7	99.3
유로	재정수지	-1.3	-0.6	-1.9	-6.3	-6.5	-5.1
	국가부채	68.3	65.9	69.5	79.0	84.1	87.0
일본	재정수지	-4.0	-2.4	-4.1	-10.2	-9.6	-8.9
	국가부채	191.3	187.7	194.7	217.6	225.9	234.1
인도	재정수지	-5.3	-4.0	-7.4	-9.6	-9.2	-8.5
	국가부채	76.0	72.9	72.6	79.2	71.8	71.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주 :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의미.

○ (배경)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자금 증대, 세수 확보 미약, 지출 위주의 재정구조 등이 요인으로 작용

- 재정지출 자금 증대 :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자금 증대
 - 미국은 재정적자 규모가 2008년 6.7%에서 2009년 12.9%로 6.2%p 증가
 - 일본의 재정적자는 2008년 GDP 대비 4.1%에서 2009년 10.2%로 6.1%p, 유럽도 1.9%에서 6.3%로 4.4%p나 증가
- 세수 확보 미약 : 경제성장률 저조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움
 - 주요국의 성장률이 2011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증가도 어려울 전망
- 지출 위주 재정구조 : 주요국의 재정은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되어있고 2011년에도 수익 증가는 완만한데 비해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여력 약화 전망

< 주요국 정부 수익과 지출 구조 >

(단위 : 조 달러, 조 엔, 조 위안, 조 루피,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E)		2011년(E)	
	수익	지출	수익	지출	수익	지출	수익	지출
미국	4.7 (32.4)	5.6 (39.1)	4.3 (30.4)	6.1 (43.3)	4.4 (30.2)	6.1 (41.4)	4.8 (31.5)	6.2 (41.2)
유로	6.1 (44.8)	6.4 (46.8)	5.5 (44.3)	6.3 (50.6)	5.3 (43.8)	6.1 (50.2)	5.4 (44.2)	6.0 (49.3)
일본	159.2 (31.5)	180.0 (35.6)	139.9 (29.5)	188.5 (39.7)	143.8 (30.1)	189.6 (39.7)	148.0 (30.9)	190.5 (39.8)
중국	6.2 (19.7)	6.3 (20.0)	6.8 (20.2)	7.8 (23.0)	7.6 (19.4)	8.7 (22.3)	8.7 (19.8)	9.6 (21.7)
인도	10.9 (19.7)	15.1 (27.2)	11.8 (18.9)	17.8 (28.5)	13.9 (18.7)	20.7 (27.9)	16.7 (19.7)	23.9 (28.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주 : 미국과 유로지역은 달러, 나머지는 자국통화 기준임.

○ (시사점과 과제) 세계 주요국의 재정 지출 여력 약화로 인한 세계 경기의 상대적 둔화가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세계 수출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2. 환율·무역 전쟁 지속

○ (현황과 전망) 서울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무역마찰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

- **환율전쟁 지속 우려** : 자국통화의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정부개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0년에 환율전쟁이 확산되었고 2011년에도 환율전쟁 우려는 지속될 전망
 - 미국의회는 중국이 환율을 부당하게 조작해 이득을 취한다며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9월 29일 의결하였고 중국 등 신흥국들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시행에 크게 반발하며 통화전쟁 확산
 - 최근 일본, 브라질, 중국, 태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자국통화의 통화가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 **무역 마찰 확대 가능성**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비관세 무역 장벽 강화,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부과 등 무역 마찰이 2011년에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의 반덤핑 관세 부가 건수가 2008년 79개에서 2009년 107개로 급증하여 개도국의 보호주의 무역 강화
 - 선진국의 반덤핑 관세 부가 건수가 2008년 60개에서 2009년에는 31개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07년 25개에 비교해 높은 수준
 - 2010년 상반기 예비(Preliminary) 및 최종(Final) 반덤핑 관세 부과 수치는 개도국 143건, 선진국 197건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예비 및 최종 반덤핑 부과 건수는 15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냄¹⁾

< 반덤핑 관세 부과 추이 >

(단위 : 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도국	105	85	105	83	79	107
중국	14	16	24	12	4	12
인도	29	17	16	25	31	30
선진국	49	53	34	25	60	31
EU	10	21	12	12	15	9
미국	14	18	5	5	23	15
합계	154	138	139	108	139	138

자료 : WTO, *Anti-dumping measures: by reporting Member*, 2010

1) WTO,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Reports under article 16.4 of the agreement, January-June, 2010*을 이용하여 예비(Preliminary) 및 최종(Final) 반덤핑 관세 부과 월별 리포트를 기준으로 수치를 산정.

○ (배경) 세계 경제의 불균형 미해소, 슈퍼 차이나의 위력 증대,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이 무역마찰 심화의 배경으로 작용

- 세계경제의 불균형 미해소 :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비중이 다시 확대되어 세계 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적자국) 미국, 호주 등의 대표적인 경상수지 적자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2015년에 각각 -3.3%, -6.0%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흑자국) 대표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인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015년에 7.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적자국	미국	-6.0	-5.1	-4.7	-2.7	-3.2	-2.6	-2.7	-2.8	-3.0	-3.3
	호주	-5.3	-6.2	-4.5	-4.4	-2.4	-2.3	-3.9	-4.7	-5.4	-6.0
흑자국	한국	0.6	0.6	-0.6	5.1	2.6	2.9	2.3	2.2	2.0	2.0
	일본	3.9	4.8	3.2	2.8	3.1	2.3	2.3	2.1	2.0	1.9
	중국	9.3	10.6	9.6	6.0	4.7	5.1	5.5	6.2	7.0	7.8
	독일	6.5	7.6	6.7	4.9	6.1	5.8	5.3	4.9	4.4	3.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주 : 2009년 이후는 IMF 추정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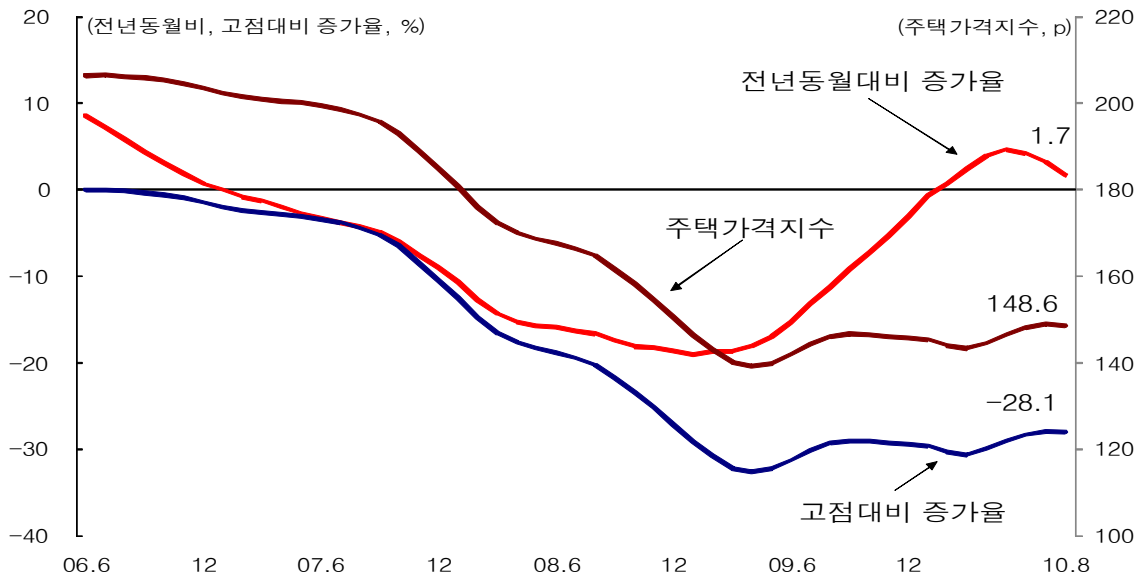
- 슈퍼차이나의 위력 증대 : 경제, 금융, 자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미국 등과 각종 경제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음
 -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2010년 2/4분기에 GDP 규모상 일본보다 앞선 세계 2위로 부상
 - (금융) 세계 제1의 외환보유 국가로서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07년 1조 5,282억 달러에서 2010년 6월 현재 2조 4,543억 달러로 급증
 - (자원)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자국의 협상력을 높여나가고 있음
- 글로벌 유동성 증가 :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급격한 자금의 유출입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가치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심화
 - 주요국 간 통화 가치를 둘러싼 보복관세 도입 등 보호주의 무역 확산
- (시사점과 과제) 통상전쟁 심화로 한국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원화 가치의 급속한 상승은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채산성 악화, 환차손 리스크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
 - 수출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교육 활성화, 투기 자금 모니터링 강화와 규제책 마련이 필요

3.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

○ (현황 및 전망) 세계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부동산 경기는 2011년에도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

- 주택 가격은 상승세가 미약하여 이전 고점 대비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
 - 케이스-실러(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010년 8월 1.7%로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
 - 2010년 8월 현재 미국 주택가격지수는 148.6으로 전 고점인 2006년 7월의 206.5 대비 28.1% 하락한 수준임

< 미국 주택가격 추이 >



구 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7월	7월	4월	7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 수	206.5	166.4	139.3	144.3	145.3	144.1	143.4	144.6	146.5	148.0	148.9	148.6
증감률 (%)	7.2 (0.0)	-16.3 (-19.4)	-18.1 (-32.6)	-13.0 (-30.1)	-0.7 (-29.6)	0.7 (-30.2)	2.3 (-30.6)	3.8 (-30.0)	4.6 (-29.1)	4.2 (-28.4)	3.2 (-27.9)	1.7 (-28.1)

자료 : Reuters.

주 : 1) S&P/Case-Shiller지수는 2000년 1월 100을 기준.

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안은 이전 고점인 2006년 7월대비 증가율.

○ (배경) 경기 회복 부진, 주택 매매 심리 악화, 주택판매 전망 미흡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임

- 경기 회복 부진 : 고용시장 부진, 소비 및 생산 부진 등 실물 경기 부진
 - 경제성장률 하락세 : 실물부문 악화, 주택시장 저조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0년 2/4분기 전기대비연율 1.7%에서 3/4분기 2.0%로 낮은 수준
 - 고용시장 부진 : 실업률은 2010년 9월과 10월에 9.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8년 9월 금융 위기 시의 6.2%에 비해 3.4%p 높은 수준임
 - 비농업부문의 취업자수 : 2010년 5월 43만 3,000명 증가에서 6월 17만 5,000명 감소 전환. 9월 9만 5,000명 감소로 4개월 연속 감소세
 - 소비 및 생산 부진 : 소매판매액은 2010년 1/4분기 전기대비 2.0%, 2/4분기 1.1%, 3/4분기 0.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ISM 제조업 지수는 9월 54.4로 최근 고점인 4월 60.4 이후 하락세
- 주택 매매 심리 악화 : 미국 주택시장지수(HMI)²⁾ 지수는 2010년 10월 16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 2009년 1월 8를 기록한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택시장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임을 반증
 - 2006년 4월 이후 주택시장 여건이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50 미만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1월 8까지 급락
- 주택판매 전망 미흡 :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 기존주택판매는 2011년 2/4분기에 가서야 500만 채 이상이 되어, 2009년 실적인 연간 515만 6,000채에 근접할 전망
 -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기존주택판매는 2010년 3/4분기 415만 3,000채, 4/4분기 453만 1,000채, 2011년 1분기 476만 5,000채, 2/4분기 520만 2,000채로 전망

○ (시사점과 과제) 미국 주택경기의 회복 지연은 미국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따르는 미국과 세계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수요 악화에 대비하여 수출지역 다변화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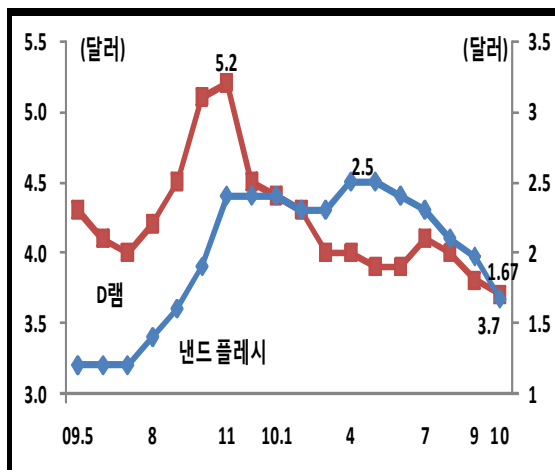
2) 미국주택건설업체(NAHB)와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함. 주택시장지수(HMI: Housing Market Index)가 50 미만이면 주택시장이 6개월 후에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고 50 보다 높으면 낙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임. 50이면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4.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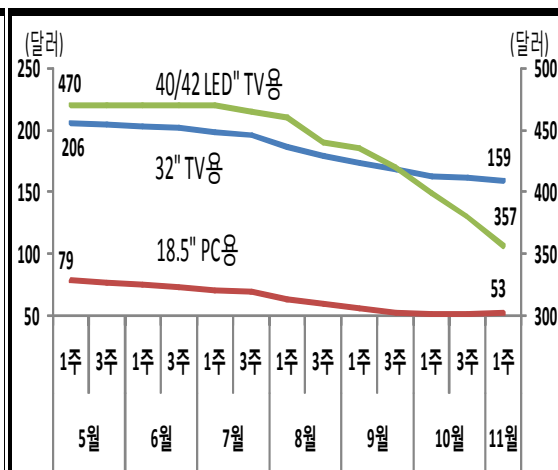
○ (현황과 전망) 2010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는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LCD 가격이 201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2010년 상반기 말 이후 램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됨
 - 2009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상승 하던 D램 가격은 2010년 6월에 개당 2.5달러를 기록하며 고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010년 10월 개당 1.67달러까지 하락
 - 낸드 플래시는 2009년 11월 개당 5.2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0년 10월 개당 3.7달러로 36.8% 감소
- 패널 가격은 2010년 1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
 - 40/42" LED TV 패널은 2010년 5월 개당 470달러에서 2010년 11월 개당 357달러로 24% 하락
 - 32" TV용 패널은 2010년 5월 개당 206달러에서 11월 개당 159달러로 22.8% 하락
 - 18.5" PC용 패널은 2010년 5월 개당 79달러에서 11월 개당 53달러로 32.9% 하락

< D 램 및 낸드 플래시 가격 동향 >



< 2010년 패널 가격 동향 >



자료 : DRAMeXchange DB.

주 : 1) D램은 DDR2 고정 가격이며 PC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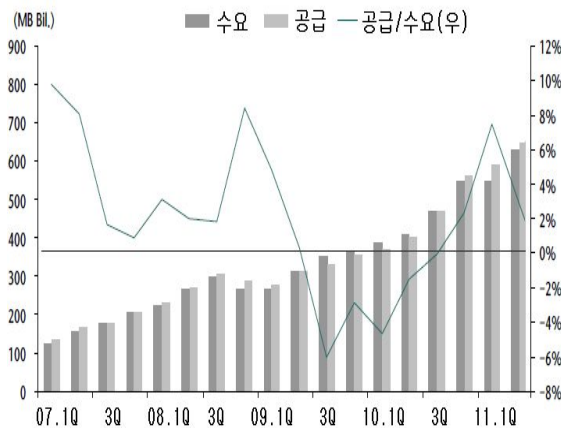
2) 낸드 플래시는 고정 가격이며 모바일용.

자료: Display Research, Witsview

○ (배경) 2010년 하반기 이후 선진 시장 중심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업계의 투자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반도체와 패널 수요 감소 : 세계 경기 회복 둔화, 각국 소비 부양책 약화에 따른 가전 제품시장의 수요 감소, 과도한 재고를 갖고 있는 중간 유통업자들의 재고 조정 등으로 반도체와 패널 수요 감소
 - 반도체 : 과도한 재고를 줄이고자 하는 재고 조정, 경기 부진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극심한 PC 수요 부진, PC 가격대비 높은 D램 가격 비중 등으로 수요가 하락.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1년에 PC용 D램 시장이 축소될 전망이다
 - 패널 : TV 패널 역시 LCD TV 판매 실적 저조와 세트 업체의 재고 조정으로 단가 하락이 지속됨
- D램과 디스플레이 공급 증대 : 2010년 하반기 이후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공급 물량 증가, 새로운 반도체 양산, 중국의 디스플레이 공장 건립 등으로 공급 과잉 우려
 - D램 : 주요 D램 공급 업체들의 공급 물량 증가로 2010년 2/4 분기에 과잉공급으로 전환되어 가격 하락. 또한, 2011년에 30 나노급 D램 제품의 양산이 본격화 되면 원가 절감으로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 존재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는 대만 등 후발 기업의 투자가 2011에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BOE 등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과잉 공급의 변수로 작용이 예상됨
 - ※ 2010년 2분기 이후 나타난 LED TV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량이 증가하며, LED 생산 업체들이 LED TV 산업의 기존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를 증가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D 램 수급 동향 >



자료 : IDC

< 중국 LCD 투자 추이 >

시기	내용
2009년 10월	LG, 삼성 중국 LCD 공장 신청서 제출
2010년 2월	중국업체 BOE, IVO, TCL 8세대 LCD 공장 건립 허가
2010년 5월	LG 디스플레이 중국 투자 승인 보도
2010년 7월	삼성전자가 현재 8세대 건립중에 있는 TCL에 투자 계획 보도했으나 삼성측에서 부인

자료: 내외신 종합.

○ (시사점과 과제)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패널시장의 경기 둔화와 단가 하락은 수출 부진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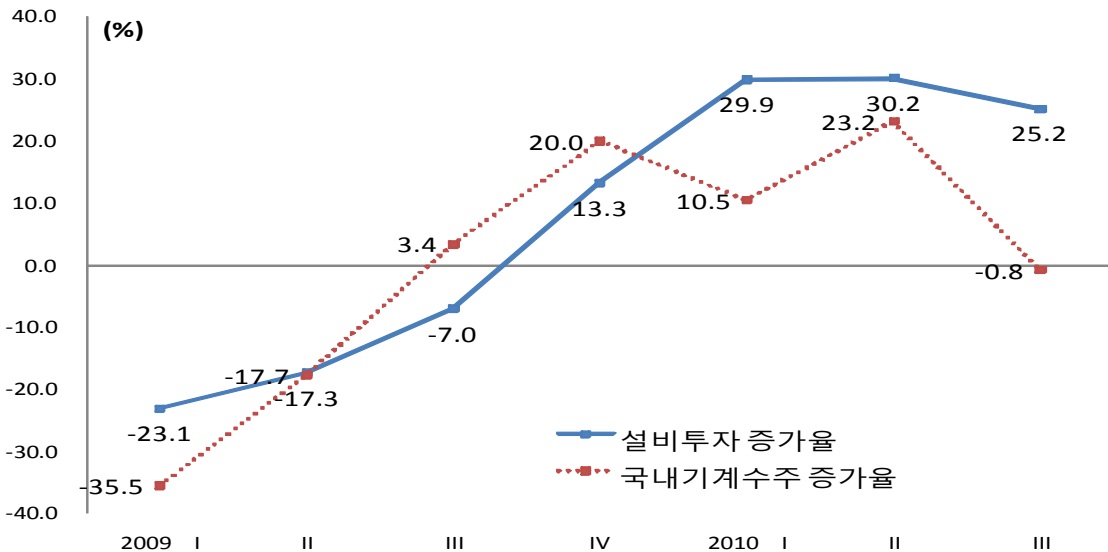
- 반도체와 LCD의 신수요 발굴과 신흥지역에 대한 수출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함

5.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부진

○ (현황 및 전망) 2010년 초 급증하던 설비투자 및 투자선행지수가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

- 2010년 설비투자는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나 2/4분기 이후 상승세 둔화
 -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1/4분기 29.9%, 2/4분기 30.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3/4분기에 25.2%로 상승세가 둔화
- 투자선행지수도 3/4분기에 접어들며 빠른 하락세를 나타냄
 - 투자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이 2/4분기 23.2%에서 3/4분기 -0.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 설비투자 및 민간기계수주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설비투자와 민간기계수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비

○ (배경) 2010년 투자급증에 의한 기저효과 발생과 함께 경기둔화 전망,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됨

- 기저효과 발생 : 경기회복세 및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설비투자가 집중되어 내년도 기업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될 전망
 - 특히 임시투자세액제도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내년도 투자를 일정부분 앞당긴 것으로 분석

- **경기둔화전망** : 경기회복세 둔화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경기불확실성 증대
 - 경기 선행지수의 9개월 연속하락에 이어 3/4분기에 접어들며 동행지수도 하락하며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금리인상가능성 대두** :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며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감 증대될 전망
 - 2010년 11월에 기준금리는 0.25%p 인상된 2.50% 기록. 2011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됨
 - 인플레이 압력이 고조되며 올 6월 이후 기업대출 금리는 상승세로 반전
- **설비투자조정압력 약화** : 9월 설비투자조정압력은 마이너스(-)로 반전
 - 9월 산업생산증가율이 4.0%에 그친데 비하여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은 6.5%를 기록하여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5%p로 급락
- **투자심리냉각** : 하반기 접어들며 설비투자전망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냄
 - 전국 제조업 설비투자전망 BSI 지수는 6월 107에서 11월 102로 5포인트(p) 하락

< 투자 관련 경제지표 추이 >

(%)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경기	선행지수(%)	8.0	7.1	6.8	5.9	4.9	-
	동행지수(%)	101.4	101.7	102.2	102.1	101.3	-
소비자물가지수 (%)		2.7	2.6	2.6	2.6	3.6	4.1
기업대출금리(신규취급액 %)		5.48	5.40	5.45	5.57	5.51	-
설비투자조정압력(%p)		16.4	12.0	9.6	10.3*	-2.5*	-
설비투자전망(p)		104	107	106	106	106	105(1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1)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경기동행지수는 순환변동치.

2) *는 짐정치, () 안은 설비투자전망지수 11월 전망치.

○ (시사점과 과제) 투자심리는 내수경기침체와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투자심리 진작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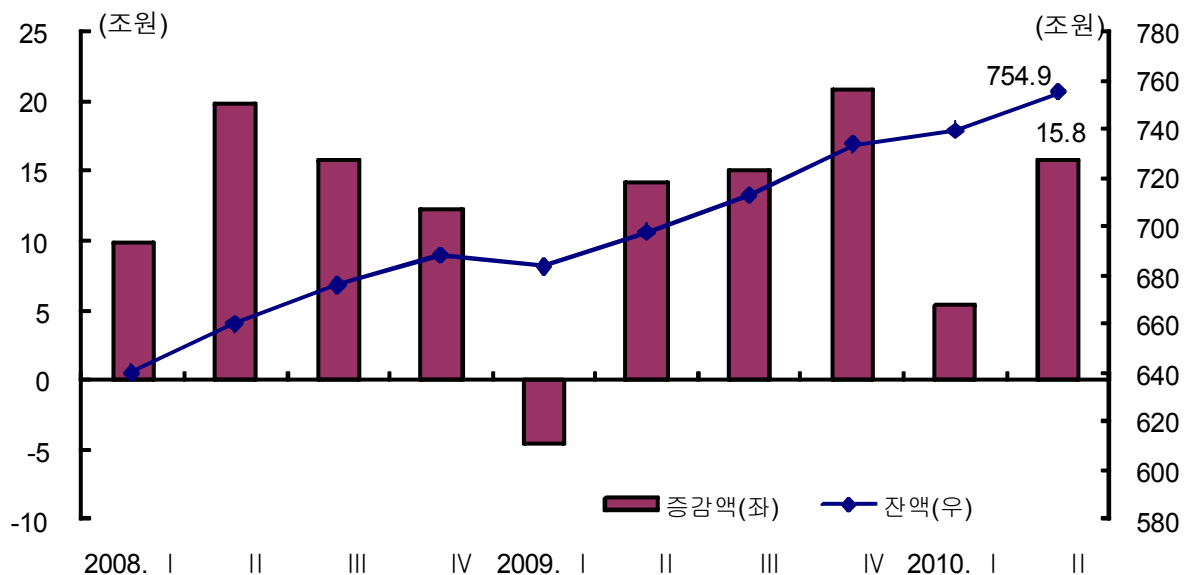
- 합리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투자관계 구축 추진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과 같은 투자유인대책 필요

6.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 (현황과 전망)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큼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하락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국내 가계신용은 2008년 57.6조원, 2009년 45.4조원, 2010년(1~6월) 21.1조원 증가하여 2010년 6월말 현재 754.9조원을 기록
-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영향이 당장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음
 - 2010년 3/4분기 가계연체율이 2/4분기 대비 0.1%p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14%p 상승
 - 부동산가격 급락 또는 대외충격이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음

< 국내 가계신용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배경) 가계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한 가운데 주택시장 침체와 출구전략 본격화 가능성 등에 따라 가계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큼

- 가계 능력대비 과도한 부채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말 현재 143%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가계부채의 증가로 더욱 높아질 예정
 - 이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영국의 17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며, 특히 최하위 소득층인 소득분위별 1분위의 경우 300% 이상 수준
 - 저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 차입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미국의 13% 수준에 비해 높은 15% 수준
-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주택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저하
 - 국내 주택시장은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가격하락과 거래 감소 등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가계자산이 대부분 실물자산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건 악화 시 현금화하기 어려워져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
- 출구전략 지속 : 향후 출구전략 추진과 물가상승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경제 불안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큰 폭의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점진적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일치된 견해
 -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계획된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원리금상환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 예상

○ (시사점과 과제) 국내 가계부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악화되고 있는 가계의 재무구조(B/S), 수익성(P/L)을 개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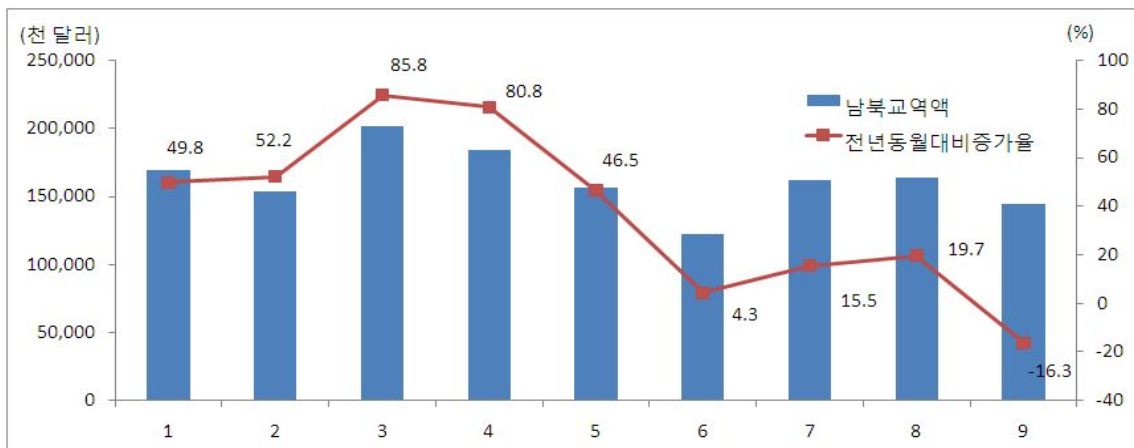
- 급격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가계부채 만기의 장기화로 가계의 원리금부담의 안정화 유도
-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가격조정으로 해결하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

7. 남북 관계 긴장 지속

○ (현황과 전망) 천안함 사태 미해결로 남북간 긴장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지연 및 남북 교류 정체가 이어질 전망

- 남북간 긴장 구도 지속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한 남북간 의견 차이로 당국간 접촉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대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쌀·비료 등의 대규모 대북 지원 등을 연계 주장
 -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인정과 관광 재개의 3대 선결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
- 6자회담 재개 지연 : 김계관 제1부상이 “9.19 공동성명 이행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한미는 조심스러운 입장임
 - 한미는 ‘先 남북관계 진전, 後 6자회담 재개’ 및 6자회담도 회담을 위한 회담보다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요구
- 남북 교류 정체 : 천안함 사고 이후 남북교역액 감소 등 경협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24 조치 이후 사회·문화 교류도 정체된 상황
 - 천안함 사고로 인한 5.24 조치 이후 2010년 5~9월 평균교역액은 1억 4,995만 달러로 2010년 1~4월 평균교역액 1억 7,871만 달러 대비 16.1% 감소
 - 남북교역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5.24 조치 이전에 비해 급격히 감소
 - 5.24 조치에 의한 방북 제한으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도 거의 중단 상태

< 2010년 1~9월 남북교역액 및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참고.

○ (배경)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미와 북중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

- **한국** :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가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란 입장이 확고하여, 관계 복원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
- **미국** : 북미 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북한의 핵 포기과 호전적 도발 중단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
- **북한** : 3대 세습 체제 구축을 위한 대내외 유리한 환경 조성이 절실한 만큼 전략적 대화 추구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 태도 변화에는 한계가 보일 전망
 - 북한은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경수로 1기 건설 보도 등 압박책도 병행할 것으로 보임
- **중국** :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남북대화 및 북한의 비핵화 행동 이행을 우선 강조하고 있는 한미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유지할 전망
 -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큰 원칙에서는 한미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비핵화 평가 방법 및 순서 등을 조율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과 과제) 남북 긴장 구도가 확대·심화될 경우, 한반도의 리스크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노력이 필요

- 인도적 지원 확대와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고위급 회담을 추진

임희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0.0	-2.6	-4.9	-0.7	1.6	5.0	2.6	3.7	1.7	2.0
유로 지역	0.5	-4.1	-2.5	-0.1	0.4	0.2	1.7	0.3	1.0	-
일본	-1.2	-5.2	-16.4	9.7	-0.3	3.4	2.8	5.0	1.5	-
중국	9.6	8.7	6.2	7.9	9.1	10.7	10.5	11.9	10.3	9.6
한국	2.3	0.2	-4.3	-2.2	1.0	6.0	5.9	8.1	7.2	4.5

주: 1)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0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11월12일	11월1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2.79	2.63	-0.16%p
	엔/달러	90.76	96.65	92.93	82.47	83.15	0.68¥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697	1.3535	-0.0162\$
	다우존스지수(p)	8,776	8,447	10,428	11,193	11,181	-12p
	닛케이지수(p)	8,860	9,958	10,655	9,725	10,090	36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46	3.33	-0.13p
	원/달러(원)	1,259.5	1,273.9	1,164.5	1,127.8	1,134.9	7.1원
	코스피지수(p)	1,124.5	1,390.1	1,682.8	1,913.12	1,927.86	14.7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6월말	12월말	11월12일	11월1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4.91	81.86	-3.05\$
	Dubai	36.45	71.85	78.06	84.60	81.98	-2.62\$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303.60	302.51	-1.0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